

지역 매 아리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돌봄지원서비스 운영

부안군 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현자)는 치매환자의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을 예방하고자 낮 시간 동안 경증치매환자를 보호해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한 돌봄지원서비스(유타)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주 3회 하루 3시간 동안 작업치료, 원예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운동치료 등 다양한 인지증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경증치매환자의 인지기능 악화 방지, 기능향상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비약물적 치료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또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올해 2월부터 평소 보건소 방문이 어려웠던 치매환자에게 편리한 입·퇴소 차량 지원 등 이용 어르신들을 위한 송영서비스 확대를 치매환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했다.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치매환자의 치매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적인 인지 건강 프로그램과 꾸준한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양한 치매지원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보건소, 손 씻기 교육용 '뷰 박스' 대여사업 연중 실시

정읍시보건소가 이달부터 수성어린이집을 시작으로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병원을 대상으로 '손 씻기 교육용 뷰 박스' 대여사업을 연중 운영한다.

뷰 박스는 손의 청결상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구다. 형광로션을 손에 바르고 뷰 박스의 검사스크린에 넣으면 형광물질이 하얗게 보인다. 평소 습관대로 손을 씻고 형광 로션이 얼마나 제거됐는지를 통해 올바른 손 씻기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

뷰 박스 대여는 손 씻기의 중요성과 올바른 방법 등을 교육해 개인위생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단체생활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소에 따르면 올바른 손 씻기는 감염병 예방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강수칙으로 감염병의 50%를 예방할 수 있다. 보건소는 "날이 따뜻해짐에 따라 오염된 물 또는 식품 섭취로 인해 설사와 구토, 복통 등의 위장관 증상이 증가하고 있다"며 "올바른 손 씻기가 수인성, 식품매개 질환을 예방하는 만큼 생활수칙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뷰 박스 대여기간은 최대 일주일이다. 대여를 원하는 기관은 보건소 감염관리팀(☎ 539-61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성과 연륜이 담긴 전통차 드셔 보세요”

유기상 고창군수, 직접 음료 나르며 노노카페 1호점 '아름다운 청춘카페' 홍보

고창군 유기상 군수가 직접 음료를 나르며 지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노(NO)-노(老)카페 홍보에 나섰다.

19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18일) 유기상 군수가 석정지구 석정커뮤니티센터 상가에 문을 연 '아름다운 청춘카페'를 방문해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이어 노인 일자리사업 담당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직접 음료를 나르며 카페 알리기에 나섰다.

노노카페의 '노노'는 늙은 노(老)자와 영어 NO의 합성어로 '늙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1호점 '아름다운 청춘카페'는 민선 7기 유기상 군수의 '시정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첫 결실이다.

시니어스 고창타워가 장소를 제공하고, 카페 운영을 위한 초기투자를 지원했다. 평균연령이 73세에 달하는 입주어르신 10명이 사업단을 만들어 전통차, 커피 등 메뉴를 개발하고 각자 집에 사연



고창군 유기상 군수가 직접 음료를 나르며 지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노(NO)-노(老)카페 홍보에 나섰다.

이 담긴 예쁜 그릇과 소품들을 가져와 카페를 꾸몄다. 아름다운 청춘카페 사업단 팀장을 맡은 신병희(75)씨는 "서울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고 아무연고도 없는 고창에 와서 적응이 잘 될까 걱정 했는데 카페운영 덕분에 낭만과 건강을 되찾았다"며 밝은 웃음을 보였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노노카페가 주민들은 맛 좋은 건강차를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고 어르신들은 사회 참여와 소득 창출의 기회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생 2모작을 시작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골든타임 확보로 국민 불안감 해소

정읍시, 오늘 화재 대피 훈련 실시

정읍시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시 전역에서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최근 종로 고시원 화재와 대구 시우나 화재 등 연이은 대형 화재로 높아지고 있는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40차 민방위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날 훈련은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병원, 아동복지시설 등 화재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중점 실시된다.

훈련에는 정읍교육청과 정읍소방서, 정읍경찰서, 해병전우회, 모범안전지원협회 등이 참여한다. 관공서와 학교, 직장민방위대, 기업체, 다중이용시설 등 기관·단체는 직장별로 훈련을 주관한다. 특히 정읍농협하나로마트(연지동)에서

는 화재 대피 시범훈련이 전개된다. 화재 초동 진압 훈련과 소방차 길 터주기 등 구조·구급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 훈련이 실시된다.

화재 초동진압 골든타임을 5분이다. 발화 후 5분 이내 발화지점에 소화기를 분사하면 화재를 보다 쉽게 진압할 수 있다. 그러나 발화 후 5분이 경과하여 화재가 번질 경우 초동진압이 어렵고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화재대피요령에 따라 신속하게 대피해야 한다.

이날 훈련은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울리지 않으며, 라디오 실황방송(FM 96.9, 101.7, 94.3, AM 567, 1308, 540, 856)으로 중계된다.

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피요령을 익혀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생애주기별 복지혜택 총정리 홍보물 제작·배포

고창군이 출산·주거 등 인구정책을 총 정리한 홍보물을 제작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9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인구정책 홍보물 - 요약에서 무렵까지 고창에서 함께해요'를 제작·배포했다.

고창 다둥이 가족(5자녀) 사진이 들어가 따뜻한 마음을 더한 홍보물은 출생에서 사망까지 고창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생애주기별, 부서별로 총정리했다.

올해 고창군은 결혼분위기 확산을 위해 고창거주 신랑신부 결혼비용으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출산 장려사책

일환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바우처 지원금의 본인부담금을 당초 50%에서 90%로 확대했다.

앞서 고창군 출산장려금(엄마 또는 아빠가 고창에서 1년이상 계속 거주)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500만원 등 총 크게 지원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은 미세먼지가 없고, 장수노인이 많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다"며 "고창 청년들이 지역에 온전히 정착하도록 정부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인생의 첫발, 책으로 아이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정읍시, '북 스타트 여는 날' 개최

정읍시책의도서관은 19일 정읍시책의도서관에서 '북 스타트 여는 날'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아기와 부모, 자원활동가, 어린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자원활동가 위촉과 책꾸러미 선물 증정, '시장님 책임주세요', 인형극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유진섭 시장은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 선포식을 시작으로 우리시의 모든 아이들이 인생의 소중한 첫발을 책(Book)과 함께 시작(Start)하도록 응원하고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북 스타트(Book Start)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의미다. 아기들에게 독서를 평생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출생과 더불어 책꾸러미 선물을 나눠주고 책을 통해 올바른

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

시는 올해 3월부터 북스타트 책꾸러미 선물을 배부를 시작했다. 책꾸러미는 예요백에 담은 그림책 2권과 손수건, 스키치북, 가이드북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상지는 정읍시에 주소를 둔 생후 직후부터 35개월까지의 아기와 아기 보호자이다.

3월 이후 출생자는 출생신고 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그 외 해당지는 정읍시책의도서관을 방문하여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을 확인을 거쳐 받을 수 있다.

또한 정읍시책의도서관에서는 3월부터 7월까지 후속프로그램으로 책을 이용하여 신나게 즐기며 배우는 '북 스타트 책 놀이'도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생후 12개월부터 20개월까지의 영유아와 엄마 20가족씩을 대상으로 총 20회 진행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마라톤클럽 회원 300여명이 최근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된 국제마라톤에 참가해 부안마실축제를 홍보했다.

부안마라톤클럽, 서울국제마라톤 참가해 마실축제 홍보

부안마라톤클럽(회장 이현주) 회원 300여명은 최근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된 2019 서울국제마라톤에 참가해 오는 4월 28일 개최되는 부안마실축제와 5월 4~6일 개최되는 제7회 부안마실축제를 홍보했다.

서울국제마라톤은 참가자만 4만여명에 달하고 거리에 응원 나온 시민 및 대회 관계자 등을 포함하면 10만여명이 넘는 명실 공히 우리나라 최대 마라톤대회이다.

이번 대회에서 부안마라톤클럽 회원들은 참가자들에게 잘 보이도록 등 부위에 홍보배너를 부착하고 42.195km의 서울 시내를 발로 뛰면서 부안

마실축제 등을 널리 알렸다.

특히 마라톤클럽 중 2인1명이 넘는 회원 수를 보유한 우리나라 최대 마라톤클럽인 러너스클럽(회장 강민자)과 함께 홍보활동을 실시해 홍보 효과를 높였으며 부안참뽕마실마라톤대회에도 많은 회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대회에서 부안마라톤클럽 박동훈·조경아 부부 회원은 마라톤에 임문한지 6개월도 되지 않아 풀코스를 나란히 좋은 기록으로 완주해 주위사람들을 놀라게 했으며 부안군청 부위에 홍보배너를 부착하고 42.195km의 서울 시내를 발로 뛰면서 부안

교하고 풀코스를 완주하면서 홍보 활동에도 일조했다.

이현주 부안마라톤클럽 회장 겸 부안군 육상경기연맹 회장은 "부안에서 열리는 최대 축제인 부안마실축제와 부안마실참뽕마라톤대회를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오는 4월 28일 부안에서 열리는 마라톤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부안 육상인들의 자부심을 드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부안마라톤클럽 회원들은 작년전부터 전국에서 열리는 각종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부안마실참뽕마라톤대회 홍보에 집중했고 최근 제7회 부안마실축제가 다가옴에 따라 병행해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o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열매가 익어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T SET 3세 | 750ml 1ea/12% |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 GIFT SET 5세 | 375ml 5ea/13% | GIFT SET 6세 | 500ml 향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 GIFT SET 7세 | 375ml 2ea/13% | TEL: 063-584-9900 www.gangsanwine.com